

제3권 (6단원 : 믿음의 사람들) (제33과) 믿음의 용기를 보여준 여호수아와 갈렙

- **본문** : 민수기 13:25-33
- **요절** :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민 14:8)
- **찬송** : 359장(새찬송가 325장), 382장(새찬송가 347장)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온 정탐꾼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으나, 나머지 열 명은 가나안 거민들이 장대하고 또 그 성읍이 견고하므로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열 명의 주장에 동조해서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받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 준 믿음의 자세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1.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신앙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열 정탐꾼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들의 강함과 성읍의 견고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보았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장대하고 전쟁에 익숙한 족속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믿음을 갖고 전진하기만 하면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하노라면 때때로 가족이나 친척들의 불신앙, 질병이나 사고, 경제적인 궁핍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신앙에 도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된다면 이는 열 정탐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본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은 활기찬 기도 생활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겸손과 인내와 절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생활에서 난관을 만났을 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한 두 사람과 같이 믿음으로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신앙의 성숙과 언약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다수결’은 회의에서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보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이 찬성한 결정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다수인 열 명의 의견에 맞섰고, 더 나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절대 다수와 맞서서 그들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수인 열 정탐꾼의 의견을 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귀를 닫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원망, 불평하며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에 다수의 반대 의견에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바른 주장을 하다가도 많은 사람의 반대에 부딪히면 주춤하고 후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양보하는 것은 어쩌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뜻을 따르는 것은 본인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불행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두려움 없이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3.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간에 약속을 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신다’(민 23:19)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창 15:18)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으며(창 28:13), 드디어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출 3:8).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장대한 거민들과 견고한 성읍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도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반드시 얻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된 약속들을 실생활에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언약의 성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영육간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려운 현실을 만났으나 신앙의 눈으로 이를 보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신앙 생활을 하노라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이를 극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